

# 최후까지 투쟁하자

[동아일보] (1945년 12월 29일)  
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송진우씨 담

우리가 가진 반만년 역사와 지나온 반세기동안 민족 해방을 위한 혈투는 세계 정국에 대하여 조선민족을 완전 해방하여 자주독립시키지 않으면 동양의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였고 따라서 조선민족은 타민족의 지배나 탁치 우는 국제공관을 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천하가 주지하게 된 사실이다. 그러므로 카이로 포츠담 국제회의에서도 조선독립을 선언케 된 것이다. 여사한 국제신의를 무시하고 세계사적 발전을 조해하는 조선의 탁치운운은 단연코 배격치 않으면 안된다. 우리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삼천만이 일인도 빠짐없이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반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.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위하여 이 강토 위에 있는 동지는 피한방울이 남지 않도록 결사적 용투로서 우리가 당당히 가져야 할 민족주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.